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가난은 부자의 밑천이고, 새마을운동은 한국경제발전의 초석이다.

부자란 많이 가진 자를 말하며 가난이란 못 가진 자로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부자는 처음부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려는 남다른 노력을 한 결과 많이 가진 부자가 되었으며 가난에서 부자가 된 자수성가의 사람은 항상 부자가 되려는 생각에서 산다. 가난이 부자가 되게 하는 시발점이 된 것이며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부단한 노력이 부자가 되게 한 밑천이 된다. 우리나라는 후진국 가난한 나라에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짚사는 나라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가난을 밑천으로 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의 노력이 있었으니, 그것은 1970년 4월 22일에 시작한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라는 새마을 운동이었다. 근면(勤勉) 자조(自助) 협동(協同)의 새마을 운동 정신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룩한 가난을 극복한 기적의 정신혁명이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 되어 후진국에 원조하면서 잘살기 운동인 새마을운동정신과 실천 방법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74개국에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다. 가난의 쓰라린 아픔을 아는 노년층의 마음속은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정신으로 부자가 되는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층의 신세대에게는 가난의 아픔을 모르고 그저 풍요로운 부자로 시작되고 있어 과소비 낭비와 태만은 다시 가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일찍 선진국이 되었던 나라가 후진국 가난한 나라로 전락 된 것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보고 있다. 부자를 밑천으로 하면 가난으로 갈 가능성이 있음으로 부자는 더 높은 곳을 쳐다보며 더 높은 선진국을 향해 노력하는 겸손하고 겸소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 오르고 또 오르는 등산을 하는

것처럼 부자는 가난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꾸준한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고 산업기술이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되는 과정을 알고 있다면 가진 자는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부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웠던 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노력해야 부자를 유지하면서 더욱 부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마을뿐만 아니라 학교 새마을 운동, 직장 새마을 운동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도 잘살기 위한 운동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1998년 이후에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민간운동으로 추진되고, 민간주도의 새마을 운동이 되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 새마을 운동의 업무부서가 없어졌고, 업무가 다른 부서에 흡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저축 장려를 하지 않으며 학생저축을 학교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조금 가진 자가 거드름 피우는 오만한 태도가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는 젓어 있다. 부모의 노력으로 잘사는 집에서 태어나 자란 오렌지족 자녀는 가난을 알 수 없다. 우리는 가난이 부자의 밑천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의 시점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더 멀리 바라보며 잘살기 운동인 새마을운동정신을 몸에 배게 해야 한다. 우리 역사상 선진국으로 가게 한 원동력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근면 자조 협동에 창조(創造) 도전(挑戰) 변화(變化)의 뉴 새마을운동정신을 실천하는 데 힘을 모아 할 때다. 가난했기 때문에 계속 가난으로 대물림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부자를 만들게 되며, 부자

였기 때문에 가난을 모르던 가난한 빈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잘사는 나라로 살게 된 원동력이 한국경제발전의 초석인 새마을운동정신의 실천이었음을 후손들에게 일깨워 주고 실천해야 한다. 남보다 부지런히 일하는 근면 정신의 실천,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겸손한 생활 태도, 더불어 힘을 모아 잘살자는 협동 정신을 실천하여 도움 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살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 되게 해야 한다. 가난에서 부자로 되는 새마을운동의 근본정신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조자립(自助自立)이었다. 그러므로 복지정책도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자조자립 하는 곳에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가난은 비록 어렵지만, 이것은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밑천이 된다고 자부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오늘 조금 넉넉하다고 근검 저축심이 없는 자만심은 가난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가정경제나 국가 경제가 좀 더 앞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회현장 법질서 확립은 '국민의 인식 전환에서부터'

지난 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로 인해 3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7~19년에 불법집회시위 대응으로 인한 평균 부상경찰관이 97.3명 발생하였고,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가 금지되었던 지난 해부터는 집회시위가 많이 줄었음에도 집회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 교통방해 등 불법 행위들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경찰은 '17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추

진하여 국민의 집회 시위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였으나 이후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법은 용인될 수 있다'는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현장 법질서에 대한 경시적인 태도가 확산되어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난 해 집회시위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 대응 방안인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로 패러다임을 보완하였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란 단계 높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제적·적극적인 자세로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불법·폭력 집회의 경우 제지·검거 뿐 아니라 상황에 맞는 신속한 해산질책을 할 수 있고, 불법·비폭력 집회의 경우 집회자유 보장을 위해 사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력 행사를 자제하지만 장기간 불법행위가 지속되거나 커질 경우 경찰력을 투입하고 적극적 예방·제지 및 사후 사법처리 행사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집회현장 법질서

확립 T/F 등을 구성·운영하여 국민들이 집회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회대응 방식을 전환하고, 언론에도 적극 홍보를 하는 등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명의 부상·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평화적 집회를 해야한다'는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으로 앞으로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평화적 집회가 개최되었으면 한다. 김동원/정충경찰서정보경비계경장

호남신문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구독신청, 광고문의 등 연락처와 서비스 정보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